

출판계에 뿌리내리는 '전문출판'

철학 · 교육에서부터 사진 · 무대예술까지 다양

최근 출판사가 늘어나고 출판영역이 광역화하면서, 특정분야의 책만을 중점적으로 펴내는 전문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철학 · 미술 · 사진 · 교육 · 소련문학 등 특정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간행하는 출판사들이 국내 출판계에서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독자들의 요구와 수용폭이 과거보다도 다양하고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철학과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각각 100여종의 도서를 발행해 화제를 모았던 서광사(대표 김신혁)와 나남(대표 조상호), 미술도서 전문출판사인 說話堂(대표 이기웅)과 미진사(대표 김현표) 등이 전문출판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선 새로운 얼굴의 전문출판사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 출판에 뛰어난 세얼굴들

우선 문학분야에서는, 소련문학전문이라는 뚜렷한 성격을 내세움으로써 국내의 수많은 문학출판사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이룩한 열린책들(대표 조영선)이 주목된다. 열린책들은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 리바코프의 「아르바트의 아이들」, 마야코프스키의 시집 「내가 아는 한 노동자」 등 이제까지 국내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소련 작품들을 활발하게 소개해오고 있으며, 1990년 완간예정인 도스토예프스키전집(전20권)을 펴낼 계획으로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련문학 전문출판사는 아니지만,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문학에 주력하고 있는 곳으로는 한마당(대표 홍지웅)과 문이당(대표 임성규)를 꼽을 수 있다. 한마당은 사회과학서들을 펴내는 한편 '세계프로문학선'(전35권)이라는 기획하여 「차베스프」(푸르마노프), 「빨치산」(이바노프), 「광명은 우리들 앞에 있다」(호야빈) 등 그야말로 국내 독자들에게 생소한 中蘇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소개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문학선」 첫권으로 「대학교수」(이그레코바)를 내놓은 문이당 역시 80년대 소련 문단의 최신 화제작들을 속속 펴낼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련문학의 국내소개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추리소설만을 펴내는 전문출판사들로는, 추리소설가 金聖鍾씨가 운영하고 있는 大作社를 비롯해 南島(대표 김인중), 현대추리사(대표 김중식)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신진 출판사들이 있다. 대다수의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이 분야의 거의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뚜렷한 색깔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푸른나무(대표 최영호)는 우리의 교육현장이 갖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책으로 정리해나가는 작업을

그동안 몇몇 분야에서만 시도됐던 전문출판이 최근에는 소련문학 · 교육 · 노동 · 무대예술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시류를 타지 않는 수준높은 기획으로 정예한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더욱 성숙해진 우리의 출판문화를 증명하고 있다.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어 교육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푸른나무는 「거꾸로 읽는 책」 시리즈로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김진경) 「아픔을 먹고 자라는 나무」(교육출판기획실편) 등을 펴내는 한편 「교육신서」 시리즈로 「한국교원노동운동사」(이목) 「스포츠와 정치」(고광현) 「분단시대의 학교교육」(교육출판기획실) 등을 내놓았다. 또한 「민중교육」 「푸른나무」(1·2) 「교과교육」 등 다수의 무크를 내놓고, 교육개혁운동의 이론다지기에 집념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평단문화사(대표 최석두)와 대원사(대표 차민도)는, 난해한 내용의 사회과학 이론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요즘의 출판상황에서, 평범한 일반독자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역사교양서들을 꾸준히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출판사들. 평단문화사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G.E. 케언스)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셰람) 「둔갑」(오비디우스) 「어떻게 그리고 왜 역사를 연구해야 하나?」 등 10여종을 펴냈고, 불교서적 전문출판사인 대원정사로부터 최근 갈려나온 대원사 역시 「동서문화총서」라는 기획 하에 「중국고적 발굴기」(진순신) 「역사와 신화의 개발굴」(셰람) 「에스터 모로우」(셰람) 「세계의 영웅 신화」(조셉 캠벨) 등 모두 6종을 선보였다. 대원사는 지금까지 외국학자들의 작품을 번역



최근 출판사가 늘어나고 출판영역이 광역화하면서 특정분야의 책만을 중점적으로 펴내는 전문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출판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민족의 역사적 발자취와 전통문화를 더듬는 교양서 시리즈 '빛깔 있는 책들'도 기획 중에 있다.

87년 여름 노사분규 이후 노동문제 관련도서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회과학 출판사들도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는데, 이 분야 전문출판사라고 이름붙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노동문고」와 노동전문 무크 「새벽」을 내놓고 있는 석탑(대표 최영희), 「일하는 사람들의 책」 시리즈로 지금까지 8종을 출간한 거름(대표 유대기) 등을 대표적인 출판사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치물 전문출판사도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13대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국회기록을 선별 수록한 「총리, 풀머거리가 됐어?」를 내놓은 함께사는세상(대표 이철영)은 앞으로 정치인들의 저서를 집중적으로 펴낼 예정이다.

연극 · 사진 · 출판학 전문출판사도

무대예술 전문출판사로서는 예니(대표 신영철)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예니는 국내외 연극 영화 스틸집 · 시나리오 · 희곡에서부터 연극이론 · 평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와 무계의 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평론 및 정보지 성격의 월간무크지 「서울벽보」를 5월호로 창간하기도 했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취약했던 무대예술의 이론적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책을 통해 연극과 영화를 만나는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니의 작업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사진시대총서」와 「사진신서」를 통해 사진학 분야의 이론과 세계 유명사진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해온 해뎀(대표 윤주심), 1950년대 후반 북한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프랑스 사진작가 크리스 마커의

사진집 「북녘사람들」을 내놓은 눈빛(대표 이영준), 88년 서울 올림픽 미술계를 둘러싸고 미술계에서 일어났던 논의를 총정리한 「무엇을 남겼나?—서울 올림픽 미술계 백서」를 최근 처녀출판해낸 얼굴(대표 주재환)들도 각각 사진과 미술분야에서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는 야심있는 출판사들이다.

한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큰 방황은 큰 사람을 낳는다」 등 명상철학분야의 책만을 출판하고 있는 명상(대표 이준호), 신과학계열의 독특한 과학철학서들을 펴내고 있는 범양사 출판부(대표 이은범), 젊은 출판사는 아니지만 「출판편집총서」 「글 더 잘 쓰기 총서」를 내놓고 있는 보성사(대표 이경훈) 등도 각기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해오고 있다.

시류타지 않는 수준높은 기획이 생명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전문화될수록 편집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게 마련이므로, 출판의 전문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분야의 학문적 업적을 신속하게 책으로 수용하여 독자와 연결시키는 일, 숨어 있는 필자를 발굴해내는 것도 전문출판사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들이다.

일반출판사에서 종종 일어나듯 어느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터지는 의외성을 맛보기는 힘들지만, 시류를 타지 않는 장기적인 기획으로 비교적 고른 판매부수를 보이는 것도 전문출판사들의 특징. 서광사 대표 김신혁씨는, 전문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책은 일단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독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출판의 질을 유지하는 한편,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는 자세로 경영합리화를 이룩하는 것도 전문출판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오애리 기자